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9>



끝만 좋으면 다 좋다고요?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똑똑해서 부모가 뭐든 가르쳐 주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그렇지 못하여 한 두 마디 단어가 이어지기만 해도 외지 못했습니다. 어느 몇 세월이 흘러 부모는 세상을 떠났고 형은 한 비구스님에게서 부처님의 가르침 한 토막을 듣고는 그 깊은 뜻에 온통 마음이 빼앗겨 출가했습니다. 그리고 출가한 그날 밤에 삼장을 다 외웠고 깊은 사색과 선정에 잠겨 아라한을 이루었습니다. 홀로 집에 남겨진 동생은 워낙 어리석은지라 재산을 다 잃어버렸고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결식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큰스님이 된 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은 거지 행색의 초라한 동생을 보는 순간 측은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어 그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형은 하루라도 빨리 동생을 깨우치려고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네 동생은 머리가 좋지 않으니 계속 하나만 외게 하자.' '세 가지 악한 업을 짓지 말고 세상 모든 중생을 괴롭히지 말라. 바른 마음으로 살피서 탐욕의 대상은 공하다'

없었다'라는 두 구절만 외우거라.' 하지만 동생은 그것조차도 외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그에게 먼지떨이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집에 있는 스님들의 신발을 털어라. 그러면서 너는 '나는 먼지를 털다. 나는 때를 없앤다'라고 자꾸만 생각해야 한다. 그런 할 수 있겠지?' 처음에는 신발을 맡기려고조차 하지 않던 스님들은 부처님의 의중을 알고 난 뒤에 동생에게 신발을 맡겼습니다. 그는 열심히 털고 또 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공경증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 외우게 하신 먼지와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열심히 신발을 털던 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아, 그 먼지는 흙먼지가 아니구나. 욕심, 분노, 어리석음을 먼지라고 말하는구나.'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치지자 그는 탐진치 삼독을 깨끗이 없앨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가부좌를 맺고 앉아 깊은 선정에 들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어리석던 동생은 아라한을 이룬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주리반특이었습니다.<근본설일체유부비나야 제31권> 불자들이면 누구나 익히 들어왔던 이야기입니다.

짧은 구절 하나 외기 위해 노력한 주리반특 부족함 알고 애쓴 하루하루가 깨달음의 순간

고 알아서 아무 이익없는 괴로움을 멀리 떠나야 하리라.' 동생은 열심히 외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록 외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옆에서 소 치면 사람들이 그것을 외었다가 동생이 물으러 오면 가르쳐 줄 정도였습니다. 형은 동생의 우둔함에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다른 이에게 보내보았지만 그 사람 역시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며 동생을 절 문밖으로 쫓아내 버렸습니다. '대체 내 머리는 왜 이리도 나쁜 것인가! 사랑하는 형마저도 나를 포기할 정도이니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녀석이다.' 동생은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워 서러움에 북받쳐 슬피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그의 슬픔이 부처님에게 전해졌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들여 자상하게 이끌어 주는 아난존자에게 그의 교육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아난 존자도 포기했습니다. 결국 동생의 교육은 부처님 몫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는 먼지를 털다. 나는 때를

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가 무엇을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경을 읽을 때마다 '그래, 아무리 어려운 부처님 말씀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게 될 거야. 주리반특도 해내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조금씩 다른 방향에서 이 이야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리반특이 '마침내 아라한이 되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는 '천천히 깨달아갔다'는 사실이란 것입니다. 멀시와 구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자신의 모자람을 절실히 깨달았고, 짧은 구절 하나를 외기 위해 온 몸으로 노력한 그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깨달음의 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과정이 있어야 나오는 것이지요. 일단 불교 보자는 마음이 수능시험의 부정행위를 불러왔습니다. 어른들의 책임이고 사회의 책임입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들 말하지요? 아닙니다. 끝만 좋다고 다 좋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과정이 좋으면 끝이 좋은 법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라는 생각을 주리반특을 통해서 해보게 됩니다.

■ 이미정(통국역경원 역경위원)



우룡 스님은 늘 불교는 작은 '나'를 죽이고 큰 '나'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상 백고좌 우룡 스님 (울산 학생선원 조실)

경주 남산자락의 새 절 합월사 마당에서 우룡 스님을 보았다. 과일장반을 들고 있으신 스님에게 합장 반배로 인사를 올리자 "큰스님들은 서울에 다 있는데 이런 시골에는 헛허러 내려 왔나?"고 되물었다. 그래도 멀리서 온 기자를 내치지 않고 요사로 들인 스님은 별로 활달이 없었다고 했다. "맨날 하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무슨 이야기해야 해요?"라며 기자의 맥을 뺐다. 세상 사람들이 스님의 말씀 감지 않음을 섭섭해 하는 혼잣말 가족에게 말로 상처주지 마라

처럼 들렸다.

이런 저런 근황과 건강을 묻는데 전화벨이 울었다. 마침 주지 스님이 자리에 없어 우룡 스님이 직접 전화를 받았다. 한참 말없이 수화기를 들고 있던 스님이 천천히 입을 폈다. "결에 스승이 있으니까 결의 스승한테서 배우세요. 불교는 출발점이나 도착점이나 똑같아요. 가는

코스도 정해져 있어요. 화두 염불 주력 기도 어느 것든 가까운데서 스승을 찾고 물어서 그길로만 가면 돼요." "... "누구 이야기하는 되고 누구 얘기는 안 된다는 것도 없어요. 내 결의 스승 찾아서 그분들에게 질문하면 돼요." "... 스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상대가 스님을 찾아뵈겠다고 때를 쓰는 모양이다. "그런 분별심을 갖고 있는 분이려면 만나고 싶지 않아요. (보살님) 아침저녁으로 부모, 자식, 부부간에 3배씩 서로 절합니까? 절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루 세기 밥상머리에서 합장한번 할 줄 모르고 아침저녁으로 내 가족에게 무량한번 풀지도 않는 사람이 어디에서 누구법문 들었다. 어디 잘 갔다왔다가 무슨 소용이예요? 결에 있는 스승을 찾으세요." 스님을 찾아가던 11월 17일은 대입 수능시험이 치러지던 날이었다. 전국인 사람에서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모습을 담은 뉴스가 연일 지면과 방송을 뒤덮고 있던 때였다. "편가 잘못됐지요. 일상생활에서 내 일을 착실히 잘하면 되지, 그렇게 벌나게 해서 이루어지는 게 뭐냐?" 우리나라 얼마, 아버지, 학생이 얼마나 한 마음으로 일체가 되어 있을까요? 어제도 어떤 보살이 여기 와서 아들이 시험 본다음 밤을 새워 새벽 4시까지 3000개 하신 것 같어요. 그 엄마의 노력과 그 아들의 책장 넘기는 노력이 얼마나 일치할까요? 얼마 아버지가 하는 만큼 자식의 노력도 상응해야 하는데 과연 그런가요? 사람들은 불교를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잘못 된 거예요." 스님은 일상생활 속에 가족간의 유대 없이 일방

적인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내 옆의 부처님인 가족들에게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다. "옛날 어른들은 헛바닥이 깔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거 평소 생각 못하잖아요. 살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가슴 툭툭 찌르는 말 슬하게 하면서도 잘못을 못 느끼잖아요. 그래서 내가 늘 부모들에게 얘기합니다. 부모 자식 현재동기간이라도 말로 상처 주지 마라.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족에게 욕박지르고 고향지르고 때리는 건 겁이 아니고, 겁이 되더라도 쉽게 녹아져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게 더 안 녹아져요. 한평생 죽을 때까지 안 풀릴 수 있어요. 이 응어리가 남은 동안 해탈은 이루어 질수가 없어요. 또, 내가 많이 하는 질문 중에, 당신은 당신이 가족을 형제를 이웃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냐고 묻습니다. 늘 요거 껌대기불을 꼬집고 때리며 이거 하나 밖에 모르지 않느냐? 모양도 소리도 빛깔도 냄새도 없는데 '나'라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나밖에 몰라요. 나만 생각하고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생각 없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우물 파듯이 절에가 기도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부정합니다. 그러면 그 맑은 눈으로 마음이라는 것을 본적이 있느냐 묻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 없는 거라고 할 거냐? 빛깔도 모양도 냄새도 소리도 없는 이것, 어떤 이는 '부처'라고 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진리'라고 하고 가장 쉽게는 '마음'

천년을 이어 가는 생명의 잠자리!!!

부모님께 활력을!!! 후손에게 가보를... 대를 이어 전하세요.



- 1 인 보 료 - 값 4,000,000원
- 보급형보로 - 값 2,800,000원 (체격이 작은 분)
- * 보료를 구입하시는 모든분께 희담석 방식을 선물로 드립니다.

희담석 보로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희담원석 중에서 원적외선 집과 양이 최고인 재료만을 엄선하였기에 침대 커버나 두꺼운 요를 깔고도 생명에너지가 그대로 투과되므로 침대에서 주무시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주고 지방 등이 회복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희담석 찜질팩

그냥 사용해도 강력한 원적외선에 방출됩니다



[이불 때 사용에 보세요]

- 근육통, 어깨 결림, 오십견, 척추디스크 및 교통사고 후유증등으로 찜질을 원하시는 분
- 야간근무등으로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샐러리맨
- 운전을 많이 하시는 분 등

희담석 찜질팩의 특징은 생명에너지 방사능력입니다. 통상 렌즈에 데우거나 끓는 물에 끓인 후 수건이나 헝겊에 싸서 사용하지만 희담석의 모든 찜질 팩은 찜질 부위에 대고 있는 것만으로도 세포의 활력을 높여 주어 통증이 완화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사용하시면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 희담석 머리 찜질팩 값 44,000원
 || 희담석 어깨 찜질팩 값 66,000원
 || 희담석 찜질팩 값 38,000원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서울시 종로구 건지동 110-22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이라고 부르는 이것. 우리하고 항상 공존하고 생성하는 '이것'을 아느냐 이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모르고 내외간에, 형제, 부모 자식간에 그 모진 소리, 독한 소리로 서로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게 결국 나한테 돌아온다는 생각은 못해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씨앗으로부터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내게 어떤 결과로 돌아 올 것인지 생각 안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리석게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 가족이 있느냐? 가족을 진정 사랑하느냐? 의문이에요. 무심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원결(怨結)을 맺는지 알기나 하는 건지…"

극락과 지옥은 생활속에 있어

스님은 이어 세세하게 사례를 들어가며 나쁜 업의 무서움을 이야기 하셨다. "불자들이 착각을 하해요. 극락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이 불을 탁탁 때리며요거 없어진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서 내 가족들에게 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지내면 그곳이 극락이라는 생각 왜 안 해요? '너 때문이다' '네 잘못이다' 하고 매사에 따지고 물어뜯으면 그게 바로 지옥이라. 지옥과 극락을 착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림니다. 법당에서는 절 안 해도 된다. 아침저녁으로 내 가족들에게 3배해라. 부모 남편 아내 자식에게 서로 3배씩 꼭 해라, 그게 가장 진실한 예배이고 기도다. 아침저녁으로 꼭 그렇게 해라. 내가 늘 부탁해요." 스님은 얼마전 찾아왔다는 50대 거사의 이야기를 꺼내셨다. "스님 책을 읽고 가족들에게 매일 3배씩 실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3배를 하려니 쉽지 않았어? 일주일을 망설이다 이제 겨우 자기 방에서 혼자 가족들이 있는 방향으로 3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장하십니다!' 하면서 같이 웃었어요. 또 조계종 신도회장을 지냈던 울산의 처사님은 설날 아침 60평생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 맞절을 했다 합니다. 말은 쉬워도 막상 그렇게 무릎 꿇고 절하기가 어려워요. 저는 늘 강조합니다. 법당에서는 무릎 안 굽혀도 좋으니 내 가족들에게 절해라. 그러면 내 가족에게 쌓인 원결 풀고 가족에게 복을 짓는 말바탕이 된다!" 스님의 말씀에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졌다. 이어 스님은 불교라는 것이 무엇이고 불교인은 어떻게 신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평소 생각을 천천히 풀어 나갔다.



내결의 스승을 찾아 수행을 실천하는 것에 불교의 참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는 우룡스님.

"불교는 그 '나'를 죽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한다고 해서 내 육신을 죽이라는 소리는 아니예요. '나'라고 집착는 것, 마음, 그게 죽어야 불교인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까? 모두들 어디 절에 나가고, 어디 스님 밭문 들었더라면 전부다 이루어지는 걸로 착각을 해요. 풀어야 하는 것은 결국 내 응어리입니다. 내가 억지소리 많이 해요. 부처님 말씀 팔만대장경은 당신이 사람이면 사람 자리에 서세요. 그리고 사람의 길 가세요, 그게 팔만대장경이라고 말해요. 불교는 벗어나는 게 목적이야. 해탈, 벗어나기 위해서 내 가슴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야 해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어른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염불 참선 주력 기도 간경입니다. 이쪽으로 생각을 집중시키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가슴의 응어리가 열어지고 풀어지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흔히 불교의 목적이 참선 염불 기도 같지만 이견 다 가슴의 응어리를 풀기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목적이 아니예요. 애꿎은 불교는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답답하면 염불 주력 화두라도 부지런히 해

라 하죠. 부지런히 하다보면 시간의 세계, 공간의 세계가 분리된 정(靜)의 세계, 삼매라는 것을 한번 두번씩 겪으면서 이유도 모르고 까닭도 모르는 뜨거운 눈물이 흐릅니다. 마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소리가 나오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가슴속 응어리 풀어야 이 우주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고마운 것인지 내 눈에 들어올 겁니다. 이런 곳에 생을 받았다는 자책도 또 얼마나 감사하고 복 받은 일인지 절로 느껴지고 그것을 일깨워 불평불만이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내 옆의 누구나 고맙고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 없어요. 불교인이라면 최소한 이 정도까지는 해야 불교에 발을 들여 놓았다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이견 남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부지런히 노력하고 실천하면 얻을 수 있는 경지예요." 스님은 대화 내내 작은 '나'를 죽이고 큰 '나'를 살리는 일이 가족과 세상을 건강하게 만드는 근본임을 거듭 강조했다.

경주=조용수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현 스님의 스님이 이야기

승범 스님 (上)

승범(乘範) 스님은 선암사의 상선원인 칠전선원(七戰禪院)의 선원장이자 선암사 주지인 지허 스님의 말 상대다. 지허 스님이 선암사의 대선지식이었던 선곡 스님의 지도와 소개를 받아 해인사 용담선원, 통도사 극락선원, 동화사 금당선원, 주안 용화사 선원 등에서 안거를 한 것 빼고는 조계산을 떠나지 않았듯이 상좌인 승범 스님도 동진출가 이래 선암사를 벗어나보지 않았다. 선암사에서 이력을 마치고 금산사에서 개설한 화엄학림에 가서 공부한 기간을 빼고는 선암사 바깥 땅을 밟아보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말해도 조계산과 선암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을 한다. 선암사를 한 번이라도 가 보았면 사람이라면

가씨들이 "책재금이 뭐랑가요?" 묻고, 승범은 "아, 제 각각이라고 꼭 한자를 써야 알아들었소?" 하면서 하나 둘 전라도 사투리를 가르쳐 주었다. 선암사가 태고종의 유일한 총림(叢林)인데다가 옛 모습을 손상치 않고 간직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사찰이다 보니 수련대회나 성지순례 및 연수 차원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모두다 선암사 역사 및 전각에 대해 안내를 받고자 한다. 안내를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보니 지쳐서 빠기도 할 법한데 승범 스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 전국의 관광료 사찰에서 선암사 승범 스님 만큼만 열정적이고 자세하면서도 재미있게 설명을 해 준다면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불교를 믿게 되었을 것이라는 미학인의 신념이 있을 정도다. 선암사를 찾은 대중들을 대웅전에 앉혀 놓고 선암사 창건 유래와 역사를 이야기 해주고 대웅전 뜰방 위에서 밀짚모자를 쓰고 안내를 하면 누구나 귀를 쫓긋 세운다. 물론 특유의 전라도 사투리가 사람들의 귀전을 사로잡는다. "부처님이 주장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스님이나 신도를 막론하고, 또 불교인이나 비불교인을 가리지 않고 선암사 안내 또는 불교 강의 들었던 스님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남는 사람으로 승범 스님을 첫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사람들 뇌리에 강하게 각인되어 있는 스님이다. 어느 날 승범 스님의 처소가 있던 심검당에 스물 대어섯 살로 보이는 아가씨들이 들어가더니 깔깔고 웃어대는데 도저히 웃음을 그칠 수 없다는 기세였다. 무엇 때문인지 궁금해 하는 나에게 아가씨중 하나가 무언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내 입에서도 웃음이 배사시 배어 나왔다. 승범 스님이 뒤뜰에다 꽃씨를 심어 놓고 꽃밭 표지판을 세워 놓았는데 그 내용이 가관이었다. "꽃이름: 봉숭아, 꽃말: 여루서 못살것소..." 이렇게 써 놓았으니 아가씨들이 배꼽을 잡을 수밖에 없지 않은가. 보통 사람이라면 봉숭아의 꽃말인 '부끄러움'을 예사로 적었을 것이나 평생을 전라도 그것도 선암사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라 사투리로 써 놓았던 것이다. "여루서?"가 뭐예요?" 물으니 "아, 그것도 몰르요. 부끄러라는 말 아니요, 고것이지." "꽃들을 보고 있노라면 참 맛이 있소잉. 책재금지 나름의 얼굴로 소리를 해대는데..." 그러면 아

**'선암사 지킴이' 자타 공인
구수한 사투리 사찰안내 인기**

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알아라. 그런 말이 바로 이념의 피라자를 알아부러라- 그 말 아니요?" 우리나라는 종교의 박물관이라고 할 만큼 여러 종교가 포교나 선교활동을 하고 있어서 지척하면 종교간의 갈등이 사회문제화될 소지가 있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간 대화의 모임을 이끌어 가고 있다. 케이알아이나 크리스천아카데미 그리고 유얼아이(URA) 등의 모임이 그것이다. 작년에는 크리스천아카데미에서 평화고교라는 작은 모임을 연차적으로 진행하면서 젊은 종교인들이 여러 곳을 순례하는데 선암사를 마지막 코스로 잡아서 참배할 기회가 있었다. 서로 종교가 다르기는 해도 불교 예배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 108배를 하고 난 뒤에 선암사 안내 및 불교 이야기를 승범스님에게 듣기로 하였다. 그런데 여러 날을 보내고 여러 종교의 성지를 거쳐 오면서 사람들이 다 지쳐서 108배만 대중하고 나서 잠이나 빨리 잤으면 좋겠다는 심드렁한 표정으로 승범 스님 앞에 앉았는데 스님 자신도 "한 이삼분이나 하면 좋겠지요?"하고 의사를 물으면서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찌나 재미있고 유익하던지 청중들이 지금까지의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다 가했다는 듯이 밝은 모습으로 웃으면서 "더 해 주세요-"를 연발해 저녁 11시가 넘어서야 모임이 끝났다. 행사가 끝나고 난 뒤 쓰는 설문 조사에 가장 재미있었던 곳과 가장 유익한 곳으로 선암사를 쓰고, 가장 기억나는 사람으로 승범 스님을 적었음을 물론이다. ■ 권익산 자문원 상임집사

禪敎 겸비한 대강백

우룡 스님은 이날 3시간이 넘게 어린 아이를 가르치듯 기자에게 보살행의 어려움, 인성과 정성으로 채워진 불교인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일러주었다. 하나라도 더 많은 가르침을 주기위해 애썼던 스님은 취재를 마치고 일어서는 기자를 향해 합장하며 "오늘 출대했다는 다투리 많이 했습니다"라며 빙긋이 웃었다.

스님의 말씀 끝날 무렵 불국사 강원 확장으로 있는 만상좌 덕민 스님이 찾아 왔다. 우룡 스님은 문안인사를 온 제자에게 도리어 건강과 안부를 물었다. 누구에게나 먼저 배필고자 하는 평소의 자상한 인품이 그대로 드러났다. 1932년 일본에서 태어난 우룡 스님은 선과 교를 겸비한 선지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47년 고봉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63년 김천 청암사 불교연

구원 전강을 시작으로 화엄사 법주사 범어사 강원에서 후학들을 가르쳤다. 대강백으로 오랜 세월 동안 김려년 제자들이 제방 강원의 교직원으로 두루 활동하고 있다. 통도사 범어사 생계사 직지사 등 선방에서 정진한 스님은 울산 화성선원에서 20여년 넘게 남자를 지도해오고 있다. <불교신행의 주춧돌> <영가천도> <생활속의 금강경> 등의 책을 낸 스님은 쉽고 편한 대중법문으로 신도들의 불교에 대한 안목을 열어주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세계가 격찬한 聖鐘社 梵鐘의 소리와 문양!
- 해외로 수출되는 우리의 범종 -

한국 최초의 범종제작사로 5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성종사는 지난 2002년 총복 진천으로 공장을 확장 이전, 20000관까지 제작 가능한 세계 최대의 주조설비를 갖추게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최대의 범종제작사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성종사의 명성이 國內는 물론 海外까지 알려져, 국내 업체로서는 유일하게 직접 日本, 中國, 臺灣, 싱가포르, 美國, 말레이시아 등 세계 각국으로 우리의 범종을 수출하는 등 국제시장에서도 탁월한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최대인 광주 민주의 종(8150관) 제작중)

성종사 범종만이 보유하고 있는 4가지 신기술

1. **세계 유일의 밀랍주조방법 보유 업체**
지난 07년 신라의 범종주조기법인 밀랍주조방법을 독자 재현하는데 성공한 성종사는 세계에서 유일한 밀랍주조방법으로 범종을 제작하는 회사로 세계에서 가장 표면이 깨끗하고 문양이 정교한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2. **세계 유일의 음양조율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최첨단 음향측정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음향 분석은 물론 음향조율기술을 통해 완성된 범종의 소리를 조율해 드리고 있습니다.
3. **세계 유일의 범종 열처리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 열처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 유일의 회사로 범종의 금속조직을 균일화시켜줌으로써 범종의 소리를 부드럽게 할과 동시에 수명을 연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4. **국내 최고 착색기술 보유 업체**
성종사는 범종에 흑색 케인트링을 띤던 기존의 착색방식에서 탈피, 한국 최초로 범종에 다양한 착색처리를 실시함으로써 간색, 구리색, 녹색, 금색 등 다양하면서 아름다운 색상의 범종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인도, 네팔 성지순례(20일간)에 동참하실 스님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만을 위한 성지순례를 최상의 조건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인도 불교 8대성지와 산치대탑, 아잔타석굴, 엘로라석굴, 키주라호, 포카라 등 인도와 네팔의 성지 및 주요 유적지를 상세한 설명과 함께 여유롭게 순례하는 최상의 일정입니다.

- **출발일 : 12월 25일** 동참금 297만원
 - ※ 20명 한정 (현재 8분) **안내 : 이상일 이사 (60여회 인도순례)**
 - 일 정 : 몰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키주라호-아그라-싱카시아-코삼비-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나-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네팔 성지순례 15일** (출발일 : 1월 13일) **257만원**
사부대중 누구나 동참 가능한 인도 성지순례 15일은 인도와 네팔의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하는 정통적인 순례 일정입니다.
 - 일 정 : 몰바이-엘로라-아잔타-산치대탑-아그라-바라나시-보드가야-라즈기르(영취산)-파트나-바이살리-쿠시나가라-기원정사-룸비나-포카라-카트만두
- **인도 성지순례 10일** (출발일 : 12월 28일, 1월 14일) **198만원**
성지순례 10일은 부처님의 자취가 어린 부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순례하는 일정입니다.
 - 일 정 : 델리-기원정사-룸비나-쿠시나가라-바이살리-파트나-라즈기르(영취산)-보드가야-바라나시-아그라-델리
- **미얀마 성지순례 6일** (출발일 : 12월 9일) **138만원**
불탑의 나라 미얀마를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순례합니다.
 - 일 정 : 인천-양곤-비간-만달레이-양곤-인천

聖鐘社 ● 본사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 02-733-6141 / FAX : 02-733-4840
● 공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www.sungjongsas.com E-MAIL : sungjongsas@hotmail.com